

DECO JOURNAL

데코저널

OFFICE

제주에서 10년, 다음스페이스닷투 오픈

PENSION

비우고 채우는 '제주스테이 비우다'

TRADITIONAL RESORT

전통 리조트 '구름에'

ARCHITECT

제주를 사랑한 건축가 이타미 준

HOTEL

DUPOND SMITH HOTEL

DESIGN STORY

ELSAGRAN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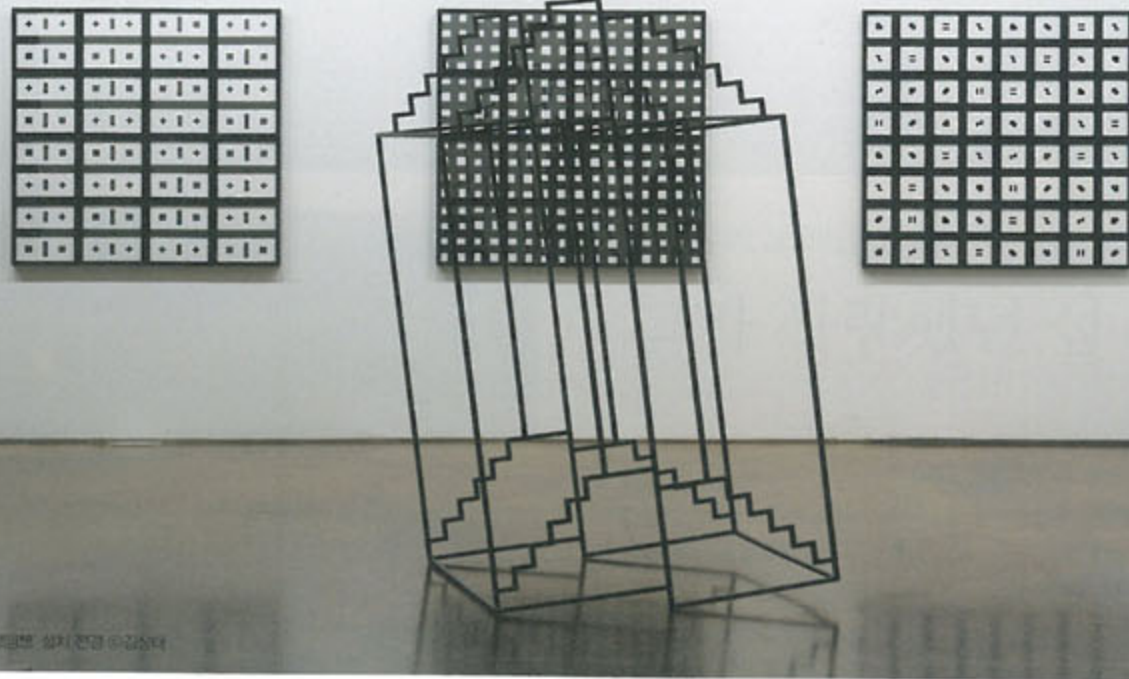
www.decojournal.co.kr

AUGUST 2014
Vol. 229 Since 1995

8

시간의 흐름에 변화하는 모든 것들의 이야기 홍승혜 '회상(回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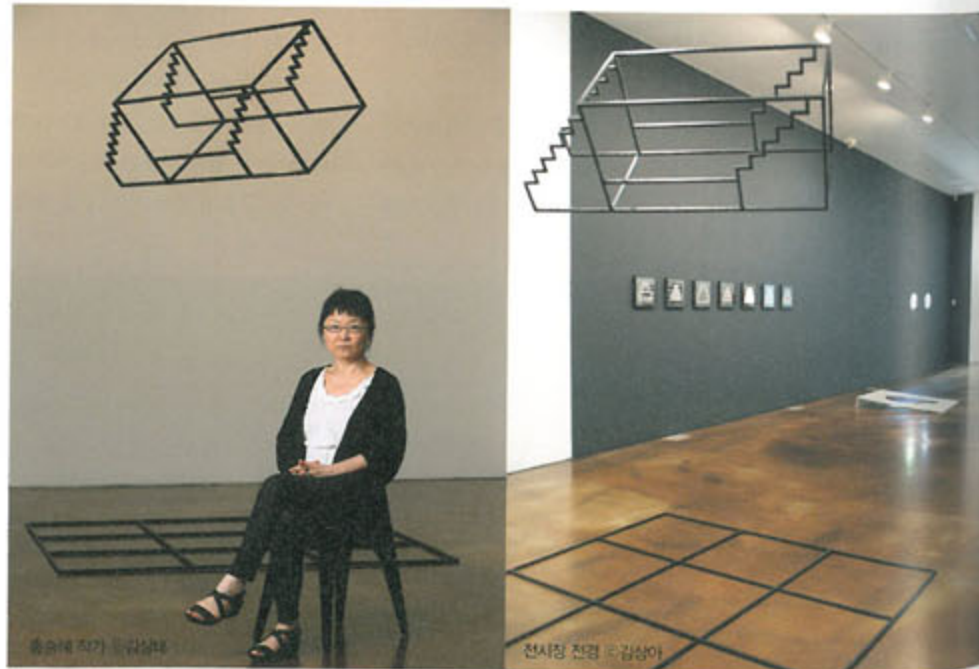
한국의 대표적인 중견 작가 홍승혜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개인전 '회상(回想)'이 국제 갤러리 2관(K2)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지난 2008년 국제갤러리 1관에서 선보인 개인전 '파편(Debris)' 이후 6번째 개인전으로서 회고적인 성격을 지닌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Editor 최은경 Cooperation 국제 갤러리 Photo 김상태, 김상아



홍승혜 작가 개인전 '회상(回想)' 설치 전경 ©김상태

'회상(回想)'은 1997년부터 시작된 작가의 '유기적 기하학(Organic Geometry)'으로 출발한 일련의 대표적인 작업들과 당시 홍승혜 작가가 다루었던 주요한 접근방식을 흑백의 조각 및 평면, 영상 설치에 이르는 매체적인 특성에 따라 총체적으로 조망하여 마치 오래된 흑백영화처럼 무채색의 '회상'의 공간으로 연출했다.

컴퓨터 포토샵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작가 홍승혜는 프로그램의 기본단위인 픽셀의 결합과 축적을 통해 이미지를 구현했다. 이번 전시는 시공간의 레이어를 넘고 'Over the Layers', 분절과 결합을 거듭하고 'Debris', 그리드의 안과 밖을 넘나들고 'On & Off', 음악적 질서를 수용하며 'Musical Offering', 끊임없는 프레임을 갱신해왔던 'All about Frames' 과거의 작업들을 형태와 소재의 변형을 거쳐 보여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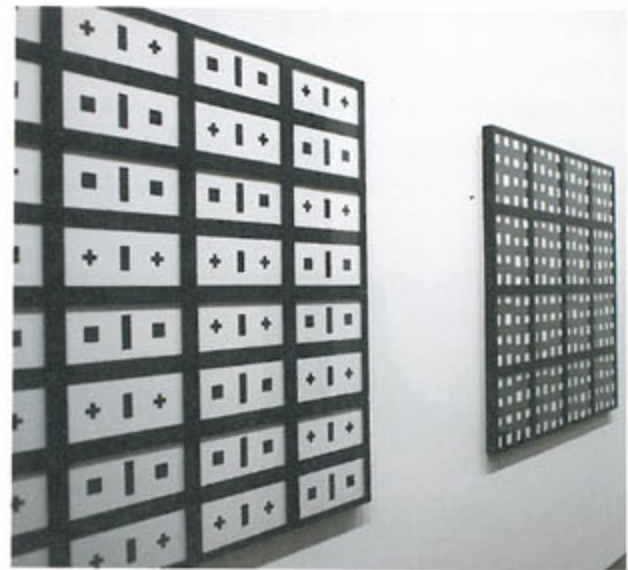
홍승혜 작가 ©김상태



전시장 전경 ©김상아

1층 전시장에는 작가의 과거 대표작들이 크기와 재료를 달리해 그레이스케일(grayscale)로 변주되고 있었다. 1997년 초기 컴퓨터 드로잉에 기초한 실크스크린 작업들은 잉크젯 프린트로, 2000년 서랍모양의 알루미늄 패널 작업은 실제 가구로 재현되고, 2004년 벽화 '회상'은 다시 알루미늄 패널로 구현되어 평면과 입체 사이를 유희했다. 또한 2008년 '파편'의 벽면 부조들은 바닥으로 내려와 건축적 면모를 띠게 되며 텍스트 조각 'MORE INTERESTING THAN ART'는 다시 파편화 되어 'MORE'로 귀결됐고, 같은 해 'On & Off' 나무 조각 작품들은 무채색의 철재로 재현되어 공간 속에서 격자구조를 넘나들고 2010년 일시적 설치 작업이었던 'About Frame'이 다시 제작되어 바닥에 놓여졌다. 1990년대 후반 사용했던 일련의 원형 프레임들을 전시장 벽에 실제로 타공하여 전시장의 안팎을 연결했고, 작가는 2000년에 제작된 타일로 재조성한 'Daybed'가 놓여있는 정원 풍경을 잘라내기도 했다.

특히 2층 전시장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제작된 6편의 플래시 애니메이션 '더 센티멘탈 The Sentimental' 시리즈를 흑백으로 전환해 한데 묶은 대규모 영상설치 작업 '6성 리체르카레Ricerca a 6'를 선보였다. 바흐의 모음곡 '음악의 현정'이 원전이 이 곡은 독립성이 강한 두 개 이상의 멜로디를 결합, 대결시키는 대위법을 기초로 한 푸가로서, 이 작곡법을 작품에 재적용 했다. 각각 다른 시기의 센티멘탈리티를 한자리에 모은 이 뮤직 비디오들은 서로 충돌하며 언뜻 불협화음을 만들지만 잠시 후 그 불협화음 속에 각각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고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전시는 8월 17일까지.☎



©김상아

1,2 홍승혜 작가의 설치 작품들이다. 3 MORE